

북핵위기 시발점 분노의 핵, 죽임의 마성(魔性)인 '나'라는 주체의식

명견만리 혜안으로 해원상생 평화통일 해법 說하는 정도령(正道令)

'분노와 화염', '깡 포위사격' 등 험악한 말 폭탄으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던 미국과 북한의 태도가 한풀 꺾였다. 미국 쪽에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연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도 미국 태도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장담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더디더라도 반드시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모두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다. 그러나 전쟁이란 서로가 원하지는 않지만 더 큰 희생을 없애기 위한 최선책이라는 변명으로 시작한다. 처음부터 총칼을 들고 시작하는 전쟁이란 없다.

작은 의견 차이에서 감정충동로 이어지고 결국은 사생결단, 국가의 존폐를 결정짓는 한판 전쟁으로 발전한다. 전쟁과 평화, 마음먹기에 달렸다.

자강안보, 평화통일, 영생복락의 옹공로 대한민국 북핵위기를 진정시킬 전지전능의 중성자, 극기승자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중심축인 한반도에 세계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전 세계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일까?

의심들은 북한과 미국 간 일촉즉발의 전쟁발발 위험성을 연일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작 한국인들은 전쟁의 공포나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고 초연하게 일상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도대체 왜?

문제해결을 위한 정답을 아는 사람,



MBN캡처 2017. 8. 10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대한민국에 출현한 메시아 구세주가 양심으로 분하여 대한민국 백성들을 든든하게 보우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 구세주 출현 이후 37년간 불사영생의 진리, 해원상생의 해법,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법, 남북통일을 이루고 세계가 하나 되는 자유율법 등을 만천하에 공개했음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사회각계 지도층인사들은 메시아 구세주의 출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대형 사건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막대한 재산 손실을 입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선량한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방지해서는 안 된

다.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해법은 구세주 메시아의 출현 사실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것이다.

6천 년 동안 감춰진 '깊은 마음신의 생태학' 인간이 품고 사는 '나'라는 주체의식, 자존심이 북핵보다 무서운 죽음의 핵, 선악과(마귀신)

구세주 메시아는 이렇게 호령한다.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신이다. 성경의 「선악과 사건」이란 하나님의 신이 마귀 신에게 점령당함 신들의 전쟁을 말한다. 마귀신이 에덴동산을 지배하던 하나님을 점령함으로써 불사영생의 하늘나라 에덴동산이 죽음의 인간 세상, 실락원으로 변했다.

그 실락원이 현재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마귀 신에게 점령당하는 순간 인간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그 순간 마귀가 사람 속에 '나'라는

주체의식으로 자리 잡아 하나님인 양심을 노예로 가두고 지배를 하게 되었다. 인간의 '나'라는 주체의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고로 사람속의 마귀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신인고로 성경과 불경은 '나를 항상 버려라'고 했지만, 왜 나를 버려라 했는지 몰랐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 신이 지배하는 신인 고로 성경 불경에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의 마귀를 이기고 완전히 죽인 후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귀의 집을 빼앗은 이긴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메시아 구세주가 나와야 나라의 주체의식이 죄의 본질인 선악과라는 사실을 비로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신과 마귀신의 병존체다. 사람과 생명체가 죽고 세상 만물이 변하고 썩는 것은 그 지배하는 신이 마귀 신이기 때문이다."

어려운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문제의 시발점(始發點)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완치가 가능한 이치와 같다.

과거에 실제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부터 시작하여 그 후속 사실들을 계기적(繼起的)으로 조사 탐구하여 따져나가기 위함이다. 그 시발점을 제대로 알아야 과거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재를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2면에 계속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15>
“자유율법이란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그러한 확실 속에서 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과학적이면서 통계학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죽는다, 죽는다 하니 죽는 것이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하면 안 죽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실 속에서 살고, 나는 영원무궁토록 산다는 확실

속에서 살면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비결은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율법이라는 것은 영생할 수 있는 마음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마음, 사망의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마음이 자유율법이고, 바로 영생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유율법인 것입니다.*



빈배가 되어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다. 어떤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기도 하고, 시기하는 상대에 의해 모함을 당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부분 황당함을 느낀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

사실 이런 경우 애초 조그만 오해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왜곡하여 제 맘대로 해석하거나, 잘

못 듣고 그럴 수가 있다. 이럴 때는 양자간 대화를 하면 그 오해를 풀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통한 소통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통을 위한 노력이 더욱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이다. 감정이 굳어지면 대로 깊어진 경우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장사에서 읽은 이야기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로 강을 건너갈 때 앞에서 어떤 배가 가로막게 되면 그 배를 향하여 소리를 칠 것이다. 비켜달라고.

그래도 비켜주지 않으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그래도 안 비켜주면 더욱 더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배가 아무도 타지 않은 빈 배라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빈 배가 되어라.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여!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에게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잘 나가거나 일이 잘될 때는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모함과 황당함을 겪기도 한다. 그때 그 상황이 대화와 소통으로 풀린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도저히 풀리지 않는 것이라면 이때 장자의 예화

'빈 배'를 떠올리는 일도 관중을 것 같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여! 빈 배가 되어라. 빈 배가 되었을 때 누구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빈 배가 되는 것인가. 빈 배란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을 일컫는 것이니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고 온 인류가 다 내 몸처럼 된 마음의 소유자일 것이다.

빈 배가 되어라. 그리하면 세상의 강을 건널 때 어떤 파도와 풍랑이 몰아쳐도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고 잘 건널 수 있을 것이다.*

2면에 계속 ▶

가지고 있는 것을 선물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영생의 신인고로 가지고 있는 밀천(秘泉)인 영생의 영박에 없다. 따라서 죽을 인생들에게 영생의 영을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는 자는 믿음 즉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영생의 영으로 인하여 영생하는 자이다. 영생의 영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공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구세

정정합니다. 2017년 8월15일자(741호) 1면 기사 중 월은 김쌍규, 일운 김재규는 월은 김재규, 일운 김쌍규로 바로잡습니다.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시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탐구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 없다

지금으로부터 2천 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가 실존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는 대중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예수교인들은 신약성경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인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빈약하고 어설피다. 신약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예수님의 입으로 말씀한 것 중에 온전한 구원론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예수가 알고 있었던 구원론을 신약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 예컨대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길가에 앉은 소경 '바디매오'라는 거지가 그의 꺾가에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붙잡고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예수가 거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하고 묻자, 소경 바디매오는 "선생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대

진짜 메시아는 구원론과 믿음론을 정확히 논한다

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말하자, 소경 바디매오는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를 보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는 피를 쏟는 것이 즉시 멎었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는 혈루증이 낫게 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는 소경 바디매오의 병고침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고침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병고침을 받은 자마다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가 자기 자신이 진짜 구세주 그리스도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는데(엡2:8), 소경 바디매오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 둘 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인데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병고침을 받고 백 세도 못돼서 죽는 자가

아니라 영생하는 자인데, 이 또한 예수 자신이 몰랐다.

또 두 번째로 예수가 진짜 구세주로서의 자격이 없는 명백한 증거로, 예수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심지어 예수 자신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도 구원을 얻은 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 스스로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년간의 예수 공생애 이후 2천 동안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지만 한 명도 영생 얻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요11:25~26)"의 말씀도 거짓말로 판명된다. 성경적인 구원론은 누구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요 3:5)고 정확히 쓰여져 있는데, 이 또한 예수 자신이 모르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잘못 가르쳤다.

성경적인 구원은 병고침을 받고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

성경적인 올바른 구원론을 살펴보자. 구원론의 범주에 속하는 믿음론에

대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도 설명하지 못했고 오늘날 신학자나 목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구원론과는 거리가 먼 단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고 했는데, 예수는 예수 자신을 믿고 병고침을 받은 자들에게 말하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함으로써 인간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게 까짜 그리스도는 믿음이 될 지 알지 못하지만, 진짜 구세주 이긴자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시는데 다음과 같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선물이라는 것은 받는 자에게 득(得)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